

주일가정예배 순서

[맥추감사주일]

2021년 7월 4일 주일예배

인도자 :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 1 여호와께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 10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 14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1,10,16)

언제나 우리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전염병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맥추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며 베풀어주신 은혜와 또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로 또한 보살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각 예배 처소마다 임재하시어 은혜충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94장 다같이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 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3.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시편 16:1-11 인도자

- 1 하나님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 2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 3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 4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 5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 6 내게 줄로 채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 7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 8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
하리로다
- 9 이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 10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 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설 교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430장 다같이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후렴〉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때 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1. 코로나 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3.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좌석 30%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앙교회 예배당 495명) 현장 예배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인원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

(시편 16:1-1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라고 했던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삶에는 이처럼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현대인들은 더욱 큰 아우성을 치고 있다. 과학문명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발전 등은 인간의 삶을 더욱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다윗은 불안해하지 않고 도리어 흔들림 없이 자신이 길을 걸어갔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으로써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까지 만끽했다.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①전적 귀의(歸依)(1-2절):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신앙고백하고 있다.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발버둥이었다. 하지만 행복의 과량세를 찾는 그런 삶의 끝은 비참함과 죽음뿐이다. 이제 인류는 돌아와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다윗도 여호와를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유일한 복이 그분 안에만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②전적 충성(忠誠)(3-4절): 다윗은 우상을 나의 즐거움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만 더해가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다윗은 자신만은 오직 참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며, 우상에게 바치는 피의 전제도 드리지 않고, 그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노라 단언한다. ③전적 소망(所望)(5-6절):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자기의 분깃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자족하며 살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다윗을 위해 기업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 그것은 결코 쇠하지 않을 기업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6절)라고 하고 있다. 만약 저 천국에 내 분깃이 없다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애걸복걸하게 될 것이다. 저 천국에 있는 내 집은 도둑이 도둑질도 못 하고, 좀이나 동록도 해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녀 몰래 적금을 붓는 분처럼 나를 위해 영원한 적금을 들고 계신다. ④전적 동행(同行)(7-8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늘 가까이하려 하신다. 인간의 죄를 지적하시는 목적도 죄 문제를 해결하여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고대에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하셨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신다. 또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 성령님을 내 상담자요 변호사로 대하면서 함께해야 한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요동치지 않게 된다. 이성봉 목사님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은 주님의 손을 붙잡은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고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 우리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서 스올, 무덤, 죽음, 지옥, 파멸로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

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도리어 주님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걷는 길은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곳곳이 지뢰밭이고 함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도 때로 파멸로 이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14:12). 하지만 주님은 항상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당신은 현재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를 원하는가? 주님은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